

[로스쿨 소식]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엔 지방출신 학생이 없다?

-전국 14개대 로스쿨 입학생 주소지 분석....
 서울 출신 지방대 포함 압도적 1위, 서울 중에서는
 관악·강남·서초 등 로스쿨 입학생 많아...
 지역균형선발 확대 시급-

1. 2017년 전국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조 서비스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1 : 2017년 전국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주소지 기준 상위 지역 현황】

대학명	전체 입학 생수	입학생 주소지 기준 시·도별 상위 비중 순위			대학명	전체 입학 생수	입학생 주소지 기준 시·도별 상위 비중 순위		
		서울	경기	강원			서울	경기	대전
강원대	45	서울 (44.4%)	경기 (20.0%)	강원 (15.6%)	이화 여대	105	서울 (66.7%)	경기 (15.2%)	대전 (3.8%)
건국대	40	서울 (85.0%)	경기 (10.0%)	충남 (2.5%)	전남대	127	서울 (36.2%)	광주 (32.3%)	경기 (13.4%)
경북대	128	서울 (42.2%)	대구 (18.8%)	경북 (11.7%)	전북대	80	서울 (40.0%)	전북 (33.8%)	경기 (12.5%)
동아대	81	부산 (40.7%)	서울 (25.9%)	경기 (8.6%)	제주대	40	서울 (30.0%)	제주 (20.0%)	경기 (12.5%)

부산대	131	서울 (42.0%)	부산 (31.3%)	경남 (7.6%)	충남대	107	대전 (36.4%)	서울 (29.0%)	경기 (15.0%)
서울대	151	서울 (66.2%)	경기 (17.2%)	부산 (2.0%)	충북대	74	서울 (44.6%)	경기 (17.6%)	충북 (8.1%)
서울시 립대	54	서울 (51.9%)	경기 (24.1%)	부산 (5.6%)	한국외 대	55	서울 (67.3%)	경기 (16.4%)	부산 (3.6%)

※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중앙대 : 자료 미보유

※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한양대 : 자료제출 거부

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북대 등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12개 대학에서 서울 출신 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3. 특히,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와 같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은 최고 85.0%(건국대)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66.2%, 이화여대는 66.2%, 한국외대 67.3%, 서울시립대 51.9%로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 거주 입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4. 뿐만 아니라 충남대, 동아대를 제외한 지방대 7곳에도 서울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는 강원도 거주 입학생이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15.6%로 세 번째 비중을 기록했으며, 충북대 입학생 중에서도 충북 거주 학생은 8.1%에 그쳐 지방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배려한 취지를 무색케 했다.
5. 더구나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입학생 주소지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서울지역 출신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 2015~2017년 서울지역 자치구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주소지 분류 결과】

연도별	서울거주 입학생수 (14개 대학)	서울시 자치구별 14개 대학 로스쿨 입학생 다수 거주 순위					
		(1)	(2)	(3)		(24)	(25)
2015	600	관악구 (80명)	강남구 (64명)	서초구 (63명)	...	강북구 (4명)	금천구 (2명)
2016	619	관악구 (61명)	동대문구 (56명)	서초구 (53명)	...	구로구 (5명)	금천구 (4명)
2017	573	관악구 (57명)	서초구 (50명)	송파구 (45명)	...	강북구 (5명)	금천구 (2명)

※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중앙대 : 자료 미보유

※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한양대 : 자료제출 거부

6. 14개 대학에서만 연간 6백명 내외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배출하는 서울지역을 25개 자치구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관악구를 주소지로 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서울대와 고시촌이 인접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순위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같은 강남 3구가 차지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경제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반면, 금천구, 강북구, 구로구를 주소지로 둔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은 6백여명 중 2~5명에 불과함으로써 강남 3구와 큰 격차를 실감케 했다.

8. 오영훈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위 ‘금수저’ 입학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전형 방안을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가산점 등 지방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